

HOLY HABIT MOVEMENT PART 1

2. 신뢰

1. 현재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?

- ex. 재정, 사업 성공,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학, 취업, 질병 치유 등
- 나눔을 여는 질문이므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,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. 상대방의 현재 삶의 가장 큰 관심사를 알 수 있으므로 단답 형식 보다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봅시다.

2.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먼저 상상해 보고,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을 적어 봅시다.

[_____] 신실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신뢰합니다.

-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살해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했습니다. 눈앞에 보이는 무서운 불구덩이 앞에서 하나님께 구해 달라고 간청하거나, 지금껏 말씀을 잘 지켰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.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지도 모르다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.
-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. 자녀 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.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**다만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십니다.**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하심,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.
-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결과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뢰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. **"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"**라는 고백을 통해 **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질문**입니다.
- 잠언 3장 5-6절에는 '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' 말씀합니다. 이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명철한 선택임을 가르쳐 줍니다.

-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자는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 이루어져 결국 선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(롬 8:28).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에 그분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(이사야 55:8-9).
- 결론적으로, 하나님의 사람이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.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을 구하는 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의 **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** 점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.

3.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. 나에게도 우상이 있다면 솔직하게 적어 보고 회개합니다.

-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든 이유는, 자신의 권력과 통치를 더 강하게 하고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‘자기 만족, 자기 유익’이었습니다. 또한 이 금 신상이 자신을 지켜주고, 자신을 더 위대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우상은 그렇게 해줄 힘이 없습니다.
- 나에게 있어 우상이란?(ex. 돈, 관계, 자기 자신, 취미, 미래에 대한 안정 등 필요 이상의 집착적인 욕구)
- 우상은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 아닙니다. 성경적으로 우상은 **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, 의지하며,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**을 의미합니다. "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"(출 20:3)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주인이시며,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.
- 우상이 생기는 이유는,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물질적 소유, 관계, 성공, 안정 등을 통해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, 이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. "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..."(삿 10:13) 이 말씀은, 하나님보다 세상적 가치에 의존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
- 회개 기도문 :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(우상)을 내려놓습니다.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. 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길 원하니 집착했던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.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,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- 이 질문과 예시는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려놓게 하여 **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**합니다.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,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된 평안과 신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“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”(렘 29:13)

4. 뜻을 정하고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손해나 희생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?

-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을 넘어 ‘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내 믿음은 변함없다’는 신념을 굳게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,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
- 이처럼 뜻을 정하여 거룩한 습관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종종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유익, 심지어 생명조차도 희생하는 것과 연결됩니다.
- ex. 시간과 에너지의 희생, 세상적 성공이나 인정 포기, 관계 갈등, 욕구 절제 등
- 뜻을 정하여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 우리는 다양한 희생을 해야 합니다.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희생은 **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길**이며, **영원한 상급을 얻는 삶**으로 이어집니다. 예수님도 "자기를 부인하고,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"(마 16:24)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내려놓을 때, 우리는 더 큰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.

5.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

-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에서 다른 욕망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.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‘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’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.
- 4번 질문과 연결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고, 무엇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, 또 그 일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. 또한 아직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.

가정예배 가이드

1. 왕이 금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

-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**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**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,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.
- 또한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, 그들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**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실 수도 있지만,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**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.
- 한편,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,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우상 숭배를 거부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.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 **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**이라고 믿었기 때문에, 그들은 어떤 고난이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.

2.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불 가운데로 다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. 남은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

- 대부분의 신학자들은, 불 속에서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와 함께 네 번째 인물이 나타난 것은 **예수 그리스도**로 해석합니다. 이 네 번째 사람은 "하나님의 아들" 또는 "하나님의 사자"로 묘사되며, 불 속에서 세 사람과 함께 걸으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.
- 이 사건은 **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** 나타내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.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이 네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의 "**현현**"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따라서 남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,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.
-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,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의 기쁜 날, 슬픈 날, 힘든 날, 행복한 날 모든 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. 주님의 이러한 함께 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시기 바랍니다.

3. 하나님이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의 굳센 믿음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?

- 1) **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.** 불이 꺼지지 않더라도 그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,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경험했습니다.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.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, 불안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
- 2) **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온 바벨론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.** 금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요구했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조차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(단 3:28-29).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- 3) **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.** 그래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오래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.

4.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가요?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 봅시다.

- 맨 처음 '적용과 나눔' 1-2번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. 나눔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되, 생각의 변화를 칭찬하고, 변하지 않았더라도 격려하여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